

## 음악을 사랑한다면 - “모차르트 250”에 부쳐서

음악대학 이 성 재

### I

2006년에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금년이 작곡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기념음악회나 기획행사들이 봇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와 모국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이곳저곳에서도 각종 기념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 초부터 연말까지 각종 음악회와 행사가 “모차르트 250”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연합뉴스의, 아래에 발췌한 것과 같은 보도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차르트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국내 모차르트 전용 소극장인 모차르트홀에서는 그의 생일인 1월 27일을 기하여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릴레이 콘서트가 열렸다. <모차르트는 모차르트홀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릴레이 콘서트는 상반기인 6월까지의 매달 27일에, 하반기에는 사망일인 12월 5일을 추모해 매달 5일 음악회가 열린다.

시립교향악단도 정명훈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전곡을 3월부터 12월까

지 7회에 걸쳐 공연하고, 모차르트가 사망한 12월달에는 그의 마지막 오페라를 콘서트형식으로 공연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호아트홀, 호암아트홀 등 클래식음악홀에서도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국내의 여러 방송매체나 음악교육기관 등에서도 “모차르트 250”을 위한 각종 특집물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학자들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레취콘서트나 세미나형식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재조명하는 학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차르트 이외에, 작곡가 로버트 슈만(1810~1856)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도 서거 150년과 탄생 100년이 된답니다. 이들 두 독일과 소련의 작곡가들 역시 나름대로 음악사에 특기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잊을 수 없는 작곡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한 축하행사도 금년 중에 계획·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와 내용이 모차르트 탄생 250년 기념행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작곡가들의 기념행사들은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은 듯합니다.

## II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음악소질을 발휘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1756~91)는, 당시 왕가나 귀족들의 총애를 받으며 소년작곡가로 음악계와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한결같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평탄하지만도 않았습니니다. 콘스탄츠와 결혼을 하면서 만년에는 가난과 고독한 가정생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창작은 계속하였습니다. 레퀴엠(鎮魂曲-Requiem)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를 받고 작곡하던 종교적인 이 곡을 마치지 못하고 36세의 젊은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유작으로 남겨진 레퀴엠은 마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면서 작곡한, 자신을 위한 진혼곡이 된 셈입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작곡가답게 주옥같은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만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청순하고 순박한 그러나 한결같이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의 음악에는 분명히 그의 성품과 개성이 흠뻑 배여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아무도 작곡할 수 없는 모차르트다운 음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참으로 천재적인 모차르트만이 해낼 수 있었던 고귀한 음악적 창조물인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이른바 고전주의(古典主義) 시대인 1750년에서 1820년 사이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하이든(1732~1809)이 고전주의 음악양식의 기틀을 다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베토벤(1770~1827)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뒤를 이어서 고전주의시대의 음악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들 세 작곡가를 가리켜 3대 고전주의 작곡가라 한답니다. 이들은 음악의 본질을 음악의 투명성에 두고 물려받은 전 세대의 음악양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히 고전주의 음악은 바로크양식(Baroque Style)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실로 얻어진 새로운 음악양식입니다. 이들은 순수음악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음악의 창작기법인 화성체계를 하나의 성부(소프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단성악(單聲樂-Homophony) 양식으로 재조명하고, 나아가 형식구조를 정비·확립하여 이룩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쾌하면서도 우아한 형식미(形式美)를 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실로 고전주의음악의 특징은 명쾌하고 우아한 음악성과 형식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주의시대의 단성음악에서는 분명하고 대조적인 선율들의 기복이 분명합니다. 대체로 선율선이 상성부에 자리하며 적절한 강약의 흐름으로 성부의 단락이 자연스럽습니다. 음악의 흐름에서 변화와 대비 균형과 통일 등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바로크양식의 음악에서는 선율이 여러 성부에서 교차 모방되며, 분명한 단락이나 강약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평탄하게 계속되는 느낌을 줍니다.

바로크양식의 작곡가로는 비발디(1678~1741), 바흐(1685~1750)나 헨델(1685~1759) 등이 있습니다. 1600년부터 1750년에 이르는 바로크시대의 카논(Canon)이나 후가(Fugue), 교성곡(Cantata)이나 수난곡(Passion) 같은 음악을 다성악(多聲樂-Polyphony)이라고 합니다. 건반악기를 배우는 음악학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칙본이기도 한 바흐의 2성, 3성 인벤션(Invention)도 다성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 III

음악은 음(音)을 소재로 하는 시간예술입니다. 음악의 소재인 소리(Sound)는, 자매예술인 미술이나 문학의 소재와는 달리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이 고전주의시대에 이르러 더욱 음악형식이라는 개념을 음악적으로 적절히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수음악(純粹音樂-Absolute Music)답게, 음악의 형식미(形式美)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성악적인 음악형식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음악사에 빛나는 업적을 세운 하이든을 비롯하여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은 오스트리아 빈, 음악의 도시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빈 고전악파(古典樂派)라고도 합니다.

음악에는 순수음악과 같이 형식미를 내세우는 음악 외에 내용을 다루는 음악도 있습니다. 표제음악(標題音樂-Program Music)이라고 합니다. 표제가 붙은 음악입니다. 그 표제는 음악에 담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도나 내용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제음악은 고전주의시대를 이은 낭만주의시대(Romantic Period)에 이르러 더욱 많이 작곡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악형식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젊은 작곡가들, 슈베르트(1797~1828), 베를리오즈(1803~1869), 쇼팽(1810~1849), 슈만(1810~1856), 리스트(1811~1886) 와그너(1813~1883) 등 많은 작곡가들이 그들입니다. 음악은 시적인 정서를 더듬어 낭만적인 표현을 모색한 작곡가들의 시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가곡을 즐겨 작곡한 작곡가들이 있는가 하면, 오페라를 즐겨 작곡한 작곡가도 있

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악에 문학이 응용되면서 연극이나 무용까지도 더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표제가 붙어 있는 음악이라고 다 표제음악은 아닙니다.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중에는 3번, 5번, 6번 그리고 9번 교향곡에 각각 “영웅”, “운명”, “전원”, “합창” 등의 표제가 따르지만 진정한 표제음악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제6번 교향곡 “전원”은 표제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곡자 자신은 ‘전원에서의 느낌을 악상으로 더듬어서 이 곡을 완성하였을 뿐, 전원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내용에 치중한 것은 아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답니다. 그만큼 베토벤 자신은 순수음악의 작곡가로서 음악형식 확립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베토벤의 작곡여정을 보면 낭만적인 요소가 농후하게 스며 있는 것을, 더욱 그의 만년의 작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제음악이라고 해도 음악형식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형식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명확한 형식미보다 환상적인 내용을 우선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식구축의 기본은 창작기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것마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품이나 단악장을 즐겨 하였습니다. 연가곡집이나 기악곡의 모음집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의 고전적인 음악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여러 악장으로 된 실내악곡이나 교향곡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작품보다 소품을 즐겨 작곡하는 경향으로 흐른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하겠습니다.

## IV

빈 고전악파들의 작품에는 소나타(Sonata), 3중주곡(Trio), 4중주곡(Quartet), 교향곡(Symphony) 등이 많이 있습니다. 교향곡을 예로 든다면, 하이든이 약 120곡, 모차르트는 41곡, 베토벤은 9곡을 작곡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이든의 120곡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교향곡과는 달리 아직 그 형식구조가 제대로 확립

되기 전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는 수인 것입니다.

자! 이 글을 구상하고 가다듬는 동안에도 KBS 1-FM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듣지는 않았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이군요.

들려오는 음악이 고전주의 음악인 것은 짐작이 갑니다. 바이올린을 독주악기로 관현악과 협연하는 세 악장의 협주곡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은 소나타형식(Sonata Form)의 제1악장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전부 이후의 재현부가 독주악기의 카덴짜(Cadenza)로 이어지더니 코다(Coda)가, 방금 제1악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느린 제2악장은 이미 지나고,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은 제3악장의 빠른 론도(Rondo Form)임이 분명합니다. 의례 협주곡의 셋째 악장은 거의 론도형식으로 작곡되는 것이 고전주의음악의 격식이니까요.

잠시 후 이 곡은 끝이 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곡의 작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니 그보다, 이 글을 읽으실 독자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1악장에 쓰이는 소나타형식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소나타형식: 세 부분(1. 주제의 제시부, 2. 발전부, 3. 재현부)과 종결부로 구성된다. 제시부(A)에서는 두 개의 서로 대조적인,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제시된다. 흔히, 제1주제는 남성적이고 제2주제는 여성적이다. 하나는 역동적인데 비하여 하나는 서정적이다. 두 번째 부분인 발전부(B)는 두 개의 주제가 지니는 여러 요소와 성격 등이 서로 어울리며 발전하여 이 악장의 중간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3부 재현부(A')는 문자 그대로 앞의 주제의 제시부의 내용을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다시 반복함으로써 대칭구조의 형식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끝으로 종결부(Coda)로 끝을 맺는다. A-B-A'-Coda와 같다.

단, 제1주제는 그 곡의 주조로 작곡되며, 제2주제는 속조로 하되, 만약 단조로 된 작품에서는 관계장조를 택해야 한다. 제시부에서는 제2주제를 주조로 옮겨서 제1주제와 같은 조성을 가지도록 전조하여서 재현한다. 그래서 부분적인 대비와 변화를 거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이룩하도록 한다.

이 소나타형식은 음악형식의 구성요소인 변화, 대비, 통일 등을 잘 안배하여

짜여진 형식입니다. 다 악장의 규모가 큰 작품의 제1악장은 반드시 이 소나타형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독립된 단일 악장의 각종 음악에도 널리 이용되는 중요한 음악형식입니다.

## V

들려오던 음악이 끝나니 해설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이든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C장조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 음악이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이든의 작품이었습니다.

고전주의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한 작곡가의 작품답게 전형적인 세개의 악장으로 된 협주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소박한 하이든의 성품이 작품에 스며 있는 듯합니다.

그 시대의 여러 악장으로 된 기악독주곡이나 중주곡 등, 실내악곡을 위시해서 교향곡, 협주곡 등은 첫 악장이 빠른 속도로 된 소나타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음악형식을 알레그로 소나타형식(Allegro Sonata Form)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악장은 느린 속도의 복합가요형식이고, 마지막 종악장(終樂章-Finale)은 론도형식으로 된다는 것이 그들 빈 고전악파가 확립한 양식적 규격입니다.

기왕이면 이번에는 론도의 형식내용과 피날레(終樂章)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론도형식: 론도주제(A)를 반복하면서 사이사이에 대조적인 에피소드(B, C, D 등)를 삽입하고 종결부(코다)로 끝을 맺는다. A-B-A-C-A-D-A-Coda, A-B-A-C-A-B-A-Coda 등과 같은 구성이다. A라는 이 곡의 경쾌한 론도주제가 각각 성격이 다른 B, C, D 등의 에피소드(Couplet)를 차례로 끼워서 음악의 흐름에 변화를 준 후 다시 자연스럽게 주제로 복귀하려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음악을 엮어나간다.

주제를 따라 둥글둥글 도는 듯한 활기에 넘치고 발랄한 성격의 음악에 적절한 이 론도형식은 다악장제 악곡의 가장 빠르고 경쾌한 속도로 몰아치는 듯한 종악장(Finale)에 활용된다.

혹은 독립된 악곡을 위해서도 널리 쓰이는 음악형식이기도 하다.

협주곡(Concerto)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다. 4개의 악장으로 된 여러 종류의 실내악곡이나 교향곡 등에서 경쾌한 미뉴에트(Minuet)에 해당하는 셋째 악장이 생략된 형태이다.

실은, 최근 음악을 들으며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PC로 듣는 나만의 라디오 플레이어' 라는 KONG(KBS Of No Gravity)을 다운로드 받아 냈습니다. KBS 미니라디오로 불리는 콩(KONG)은 6개의 KBS 라디오 채널을 손쉽게 선택하여 컴퓨터 스피커로 청취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모차르트 250"과 함께 하려고 하니, 1 FM의 클래식 채널을 즐겨 듣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콩' 을 찾아서 클릭하면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VI

"모차르트 250"이라는 기치 아래 마련되는 각종 음악행사가 찬란하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우선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사랑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누리의 변모된 모습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상념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 보았습니다. 그 중 마음에 두었던 하잘 것 없는 소박한 소망을 제언 삼아 "모차르트 250"에 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상하고 다듬으며 쉽게 시작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의 초점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잠시 중단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사정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거리에 나붙고 전파를 타고 널리 알려 퍼지며 진행되는 지구촌의 그 각종 "모차르트 250" 행사들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조사할 수 있다면 하고 상상을 해봅니



다. 각각 그 행사의 규모와 취지, 받아들이는 태도, 얻어지는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고 가상합니다. 그 통계적 분석결과는 행사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선 나라와 도시의 제반 문화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경제적 지원과 적절한 정치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그런 통계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음악문화 창달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치·경제의 영향력, 국력과 문화예술과의 개연성, 복지생활과 음악문화의 관계 등등 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상황들이, 거시적으로 깊이 있게 음미·검토하며 생각할 과제거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참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음악계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의 홍수 속에서 그 음악의 진수를 그저 흘려보내고 만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흘러들어도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그 작품을 이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발 가까이 다가서 보려는 관심이라도 보인다면 길은 트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길이란 직감과 감성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지성과 적극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식적 구성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깊숙하게 깃들여 있는 고전주의음악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빈 고전파 음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낭만주의와 바로크양식의 음악들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용의하게 트일 것입니다.

## VII

“모차르트 250”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마침 미니라디오 콩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교향곡 40번 G장조 K.525와 더불어, 우선 하늘이 주신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만이라도 두루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